Daishin 증권

2026년 04월 30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오픈AI 악재를 이겨낸 삼성전자, 코스피 강세 견인

- 오픈AI 악재에 반도체주 약세, 삼성전자는 차별화
- UAE의 OPEC 탈퇴에도 지정학 불확실성 지속, WTI 100달러 돌파
- 주요 업종: 정유/화학, 방산, 전력기기, 조선/엔진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5월 1주차] 5월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의 연장선. 꽃길은 지속된다

- 5.1일 美 전쟁권한법 60일 시한 만료. 연장 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종전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 요인
- 8일 발표 예정 美 4월 고용지표, 노동시장 둔화 재확인.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요인
- 5월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의 연장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예상. 주식,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국면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Fixed Income

4월 FOMC: "대규모 반대 의견에 매파적 색채"

- 美 기준금리 3.75%로 동결.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3회 연속 동결
- 대규모 반대 분출: 완화 반대 의견 총 3인, 단골 인하 주장 1인도 그대로
- 파월 마지막 의장 FOMC에서 한층 더 강화된 매파적 색채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Commodity

OPEC 탈퇴한 UAE, 목적은 형제들이 가진 M/S

- OPEC과 결별한 UAE. 중단된 감산 공조, 향후 독자적으로 결정될 공급
- UAE가 노리고 있는 것, 영구적 생산성 저하 발생한 형제들의 시장 점유율
- 호르무즈 개방 시 보복성 증산 나설 수 있는 사우디, 그러나 과거와 다를 효과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K-REITs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신청, 국내 리츠 시장 영향 점검

-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절차 신청, 4/29 종가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전종목 하락 마감
- 개별 종목 단의 이슈로, 타 리츠 전이 가능성 및 섹터 전반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낙폭 과대 구간에서 국내 자산 보유 대형 리츠 중심의 차별적 접근 유효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1Q26 Review] LG 전자: 1Q 호조 속에 B2B, AI 사업 강화 !

- 1Q26 영업이익은 1.67조원(32.9% yoy), 추정 및 컨센서스 상회
- MS(TV) 및 VS(전장), 믹스 효과 및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2026년 실적 호조 및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Review] 대덕전자: 1Q 호조, 2Q 도 좋다! (목표주가 36.8% 상향)

- 1Q26 영업이익(513억원 77% qoq)은 종전 추정 및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 서버향 반도체 PCB 매출 확대, FC BGA는 흑자전환 이후 이익 확대
- FC BGA, MLB 매출 증가로 2026년 영업이익은 341%(yoy) 증가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Review] 두산: 사업부문 성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의 콜라보

- '26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 상회 이유는 전자BG 제품 공급 증가 영향
- 1Q26 전자BG 매출액 6,173억원(+53.2%, YoY), OPM 30.1% 기록
- 사업부문 성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1Q26 Review]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사업 확대!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원전 모멘텀 (목표주가 20% 상향)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56,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20%)
- 모멘텀: TVA의 '2025 IRP' 승인, 한전그룹의 미국 원전 건설 참여 여부 등
- 1Q26 영업이익: 연결 2,335억원(+64% YoY), 에너빌리티 570억원(흑전)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1Q26 Review] HD 현대마린솔루션: 금상첨화 (목표주가 28.0% 상향)

- 1Q26 매출액 5,764억원, 영업이익 934억원(OPM 16.3%) 기록
- 엔진은 1)물량 증가 2)대형엔진 믹스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 중
- 힘센엔진 AM 독점 및 데이터센터 MRO · FDC 개조로 신성장 가시화

이지니. jini.lee@daishin.com

Strategy

오픈AI 악재를 이겨낸 삼성전자, 코스피 강세 견인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오픈AI 악재에 반도체주 약세, 삼성전자는 차별화
- UAE의 OPEC 탈퇴에도 지정학 불확실성 지속, WTI 100달러 돌파
- 주요 업종: 정유/화학, 방산, 전력기기, 조선/엔진

오픈AI 악재에 반도체주 약세, 삼성전자는 차별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오픈AI의 신규 사용자와 매출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오픈AI CFO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향후 AI 데이터센터 비용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

이에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6% 하락했고, 마이크론(-3.9%), 샌디스크(-6.3%) 등 주요 반도체주 약세 마감

오픈AI발 악재를 소화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도 위축. 그러나 삼성전자(+1.8%)는 외국인 수급 유입에 힘입어 반등세를 시현, 코스피 상승을 주도

반도체: 삼성전자(+1.8%), SK하이닉스(-0.5%), 한미반도체(-2.6%)

UAE의 OPEC 탈퇴에도 지정학 불확실성 지속, WTI 100달러 돌파

세계 7위이자 기존 OPEC 내 3위 산유국인 UAE가 OPEC 탈퇴를 결정. OPEC의 산유량 조절 능력과 가격 결정력이 약화로 원유 공급 확대 및 국제 유가 하락 예상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위해 장기적인 대이란 봉쇄를 지시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잔존. 원유 공급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되며 국제 유가는 상승했고, WTI 선물은 100달러 재차 돌파

중동 불확실성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전개

정유/화학: 롯데케미칼(+24.9%), 대한유화(+19.1%), S-OIL(+13.1%)

방산: 현대로템(+8.0%),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3.8%)

주요 업종: 정유/화학, 방산, 전력기기, 조선/엔진

대외 변수에도 실적/수주 모멘텀이 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전력기기: LS ELECTRIC(+4.4%), 대한전선(+11.6%), LS머트리얼즈(+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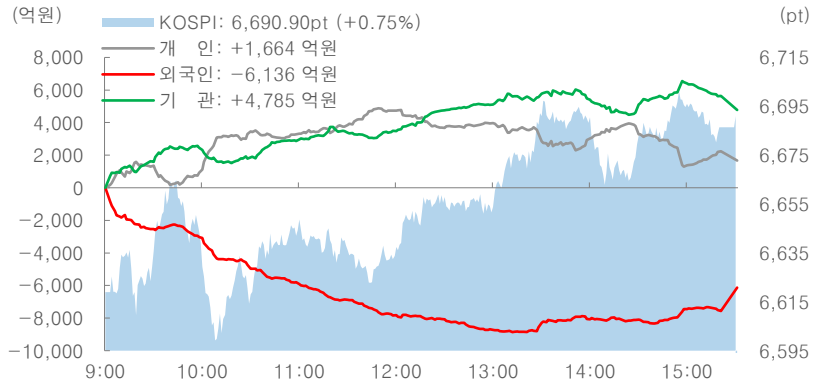
조선/엔진: HD현대중공업(+3.5%), 한화엔진(+8.1%), STX엔진(+12.5%)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상황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일부 업종 약세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2.1%), 한올바이오파마(-3.9%)

증권: 미래에셋증권(-1.2%), 한국금융지주(-3.7%), 키움증권(-4.9%)

KOSPI 투자주체별 수금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5월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의 연장선. 꽃길은 지속된다

- 5.1일 美 전쟁권한법 시한 만료. 연장 시, 트럼프에게 전쟁 종전 압박 요인
- 美 4월 고용지표, 노동시장 둔화 재확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요인
- 5월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의 연장선. 美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예상

5.1일 美 전쟁권한법 60일 시한 만료, 연장 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종전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 요인

5.1일은 미국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60일 시한 만료일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한다. 시한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선택안(1. 의회, 무력사용 수권결의 획득, 2. 군사작전 축소 및 철군, 3. 30일 연장 선언, 4. 시한 무시)이 있지만, 현 이란 전쟁 상황을 감안하면 30일 연장 또는 시한 무시를 선택할 것이다.

30일 연장은 트럼프 서명 승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병력의 안전한 철군을 위한 조치로 군사작전 지속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한 무시는 과거 오마바 행정부가 2011년 리비아 작전 시 60일을 넘겼다는 점을 들어, 시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언급한 2가지 안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 종전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 요인이 돼, 늦어져도 5.14일 트럼프 방중 일정에 앞서 전쟁 종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8일 美 4월 고용지표 결과, 노동시장 둔화 재확인해 줄 것.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놓지 말아야하는 대목

4월 FOMC는 이란 전쟁이 미칠 경제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전쟁 발생으로 연준도 인플레이션 전개 및 전망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한 명분에는 노동시장 둔화 위험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8일 발표되는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는 각각 6만 3천명, 4.3%, 3.8% YoY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의 전월대비 감소세가 예상된다. 3월의 경우 전월의 일시적 약세 요인의 되돌림이 강한 고용 증가의 원인이 됨에 따라 4월은 자연스럽게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재량소비에 해당되는 업종 중심의 채용 감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높일 것이다. 이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놓지 말아야하는 대목이다.

5월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의 연장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예상. 주식,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국면

5월 글로벌 증시는 종전 낙관론이 꽃피운 안도랠리의 연장선 상에서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 4.15일 이후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5월 예정된 호재성 이벤트(1. 이란 전쟁 종전 기대, 2.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일정, 3.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취임)를 기반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Fixed Income

4월 FOMC: "대규모 반대 의견에 매파적 색채"

- 美 기준금리 3.75%로 동결.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3회 연속 동결
- 대규모 반대 분출: 완화 반대 의견 총 3인, 단골 인하 주장 1인도 그대로
- 파월 마지막 의장 FOMC에서 한층 더 강화된 매파적 색채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미 연준, 4월 기준금리 3.75%(상한 기준)로 동결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연준은 4월 28일~29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정책 결정은 대규모(4명) 반대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무산됐다. 우선 금리 25bp 인하를 주장하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베스 해먹(클리블랜드 연은), 닐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연은), 로리 로건(댈러스 연은)는 성명서에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를 표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으나, 한층 복잡해진 금리 결정 셈법. 대규모 반대표

4월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거의 반박 없는 금리 동결 의견이 주를 이뤘다. 파월의 의장 임기 중 '마지막' 금리 결정이란 상징성으로 인해 실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 지 여부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 통화당국이 인식하는 경제 펀더멘털 여건을 확인하는데 이목이 집중됐다.

여전히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경기와 물가에 어느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화당국의 발언을 통해 둘 중에 어디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 향후 금리가 변경될 경우 확률적으로 어떤 쪽에 가능성이 높은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하지만 회의 결과 대규모 반대 의견들이 표출되며 평온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FOMC는 매파적 색채를 강화했다. 사실상 고정으로 인하를 주장하던 마이런 이사를 제외하고 3명의 지역 연준 의장들이 현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완화적 표현에 반대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물론 이들 3인 역시 동결에는 동의했지만 지난 1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전환 이후 통화정책 상의 큰 경로를 시사하는 표현에 반대했다는 것 만으로도 매파적 분위기는 크게 강화됐다.

이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책금리에 대해 "중립금리에 꽤 가깝다"는 표현을 통해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한 섣부른 억측이나 기대 쏠림을 차단하려는 인상을 남겼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분명히 신호를 줄 것이며, 또한 인하가 필요하면 적절히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신임 워시 의장 지명 직후 올해 금리 2회 인하는 큰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위원들의 대규모 반대표는 상대적으로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란 전쟁 초기 한때 인상을 전망하는 비중이 인하를 압도했다는 점은 통화정책 기조가 연초보다는 확연하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Commodity

OPEC 탈퇴한 UAE, 목적은 형제들이 가진 M/S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OPEC 과 결별한 UAE. 중단된 감산 공조, 향후 독자적으로 결정될 공급
- UAE 가 노리고 있는 것, 영구적 생산성 저하 발생한 형제들의 시장 점유율
- 해협 개방 시 보복성 증산 나설 수 있는 사우디, 그러나 과거와 다를 효과

OPEC 과 결별 선택한 UAE. 중단된 감산 공조, 향후 독자적으로 결정될 공급

지난 28일 UAE 측은 5월 1일부로 OPEC과 결별한다고 전하면서 Non-OPEC 10개국과 연대한 OPEC+ 감산 공조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UAE 에너지 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사우디)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향후 모든 공급 정책은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강조했다. OPEC 내 4대 산유국이 본격적으로 증산에 나서려는 순간이다.

UAE 가 노리고 있는 것, 영구적 생산성 저하 발생한 형제들의 시장 점유율

여기서 중요한 것은 OPEC을 탈퇴하게 된 동기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 관계(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미온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준 것이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공한 아이언 돔이다. 사우디에 대한 배신감과 안보 불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다만, 실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한다. 바로 시장 점유율(M/S) 확보이다. 지금 이라크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탓에 일부 유정을 폐쇄한 상태이며 이란은 2~3주 후 저장 능력 부족으로 폐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시적 폐쇄인 경우 단기 내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2개월을 초과할 시 워터코닝(Water Coning) 현상으로 인해 유정당 10%의 영구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3~6개월로 길어지면 25%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들의 산유량 중 내수용을 제외하면 93만b/d, 최악의 경우 230만b/d 이상 영구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143만b/d의 추가 증산 여력(2026년 2월 기준)을 가진 UAE로서는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협 개방 시 보복성 증산 나설 수 있는 사우디, 그러나 과거와 다를 효과

이제 이목은 사우디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UAE의 이탈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그간 UAE는 카자흐스탄과 이라크, 오만과 함께 감산 공조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되는 국가였다. 즉, UAE의 탈퇴가 다른 협력국들로 하여금 연쇄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면 사우디의 기강 잡기는 재개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20년 3월 사우디는 러시아 측이 감산 공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제2의 유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당시 OPEC은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주도로 2개월간 791만b/d에 달하는 공급을 밀어내며 유가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후 보복성 증산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악일 시를 가정한 유정의 영구적 생산성 손실(25% 이상)을 감안하면 증산이 미칠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이다. 특히, 이전에는 코로나19라는 수요 충격이 맞물렸지만 지금은 공급을 걸망하는 환경이다. 과거와 같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유가에 대한 낙관적인 View(후행적으로 반영될 유동성 효과 + 과거 낮은 유전 개발 투자로 인한 제한적인 신규 공급)를 유지하며 조정 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REITs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신청, 국내 리츠 시장 영향 점검

REITs Analyst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절차 신청, 4/29 종가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전종목 하락 마감
- 개별 종목 단의 이슈로, 타 리츠 전이 가능성 및 섹터 전반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낙폭 과대 구간에서 국내 자산 보유 대형 리츠 중심의 차별적 접근 유효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4/27)에 따라 상장 리츠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4월 29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6% 하락(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 기준). 개별 종목으로는 한화리츠(-10.02%), 마스턴프리미어리츠(-9.85%), 롯데리츠(-8.11%), 이리츠코크렙(-6.9%), 디앤디플랫폼리츠(-6.46%) 등 전종목이 하락 마감. 개별 종목의 유동성 위기가 리츠 섹터 전반의 조달 환경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절차 신청 타임라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리츠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하튼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보유. 동사는 5월 4일 예정된 환헷지 만기에 따른 환정산금 1,000억 원 납부를 위해 지난 1월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현지 대주단과의 자산 감평가 수령 지연으로 유상증자 철회. 이후 4월 15일 수령한 감정평가 결과 자산가치는 9.2억 유로로 산정됐으며, 이를 반영한 LTV 비율은 61.02%로 기준치(52.5%)를 초과함에 따라 캐시트랩 발생. LTV 52.5% 충족을 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은 78.3백만 유로로, LTV 요건 충족 시점까지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현지 유보 및 현지 대출 상환에 사용됨

1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채무는 전단채 400억 원(4/27), 공모채 600억 원(4/30), 환헷지 정산금 1,000억 원(5/4) 등이었으나, 유동성 부담으로 4/27 만기 도래한 전단채 400억 원 상환에 실패했으며, 기업회생절차 및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 한국거래소는 즉시 매매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ARS 신청에 따라 채권단과 협의 과정 진행 예정. 신용등급은 4월 20일 A-에서 BBB+, 4월 27일 BB+로 하향됐으며, 4월 28일 D로 하향 조정

국내 상장 리츠 시장에 미칠 영향

단기적으로 리츠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 다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캐시트랩 이슈가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어 주가에 기반영된 이벤트였으며, 해외 자산 감평가 하락, 캐시트랩 이벤트, 환헷지 정산금 부담, 차입 만기 단기 집중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서 발생한 개별 종목 단의 이슈임을 감안할 때, 타 리츠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전체 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시장성 차입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롯데리츠(40.0%), 삼성FN리츠(31.7%), SK리츠(31.5%), 한화리츠(18.6%) 등은 대기업 스폰서 기반 및 높은 신용등급(AA-~A+) 감안할 때 조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양극화 구도(국내vs해외 자산 보유, 대기업 스폰서vs금융사/운용사 계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 가운데 핵심 권역 오피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견조한 임대차 수요 등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국내 자산 보유 대형 리츠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차별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

Results Comment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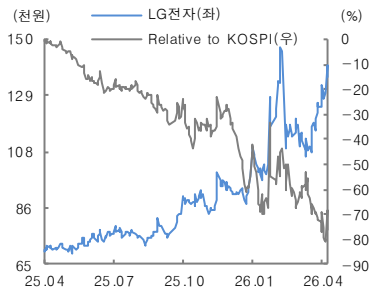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135,800
(26.04.29)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690.9
시가총액	23,14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3%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6,700원 / 69,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11억원
외국인지분율	34.18%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3	34.6	52.9	89.1
상대수익률	-1.4	5.0	-6.7	-27.5



1Q 호조 속에 B2B, AI 사업 강화 !

- 1Q26 영업이익은 1.67조원(32.9% yoy), 추정 및 컨센서스 상회
- MS(TV) 및 VS(전장), 믹스 효과 및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2026년 실적 호조 및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2026년 1Q, 매출은 23.73조원(4.3% yoy/-0.5% qoq)과 영업이익은 1.67조원(32.9% yoy/흑전 qoq)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실적으로 평가. LG전자(별도)만의 영업이익은 1.38조원으로 21.3%(yoy) 증가,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기록. 연결인 LG이노텍의 실적 호조로 추가적인 이익도 확대. 투자의견은 매수(BUIY) 및 목표주가 16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1배(성장기 평균)) 유지.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41.3조원으로 66.8%(yoy) 증가 추정과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 등 신성장 확보 노력이 진행. B2B 및 HVAC 등 신성장 사업도 순항 중으로 판단. 밸류에이션 및 신성장 확보에 초점 맞춘 비중확대 유지. 투자포인트는

1Q26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상회 : MS 및 VS 부문의 영업이익률 확대

2026년 1Q 영업이익 호조를 견인한 부분은 MS(TV 등)와 VS(전장)으로 판단. MS 부문의 영업이익(3,718억원)이 흑자전환(qoq), 영업이익률 7.2%으로 전체 수익성을 견인. 2025년 인력효율화(희망퇴직 등) 진행, 저수익 제품의 축소로 고정비용이 감소. 2026년 1Q에 동계올림픽 개최로 프리미엄 TV(OLED TV) 판매 증가, 국내에서 프리미엄 노트북에서 판가 인상, 추가적인 이익 개선으로 분석. 4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 또한 VS(전장) 부문은 수익성 중심의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면서 6.9%의 영업이익률로 최고를 기록. 다만 ES 부문은 중동전쟁으로 일시적인 물류비용의 증가, 수요 둔화로 기존 추정대비 하회

2026년 2Q, MS 및 VS 중심의 수익성 개선은 유효. LG이노텍(영업이익)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2Q 영업이익(연결)은 1.03조원으로 61.4%(yoy) 증가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2,740	23,852	23,733	23,727	4.3	-0.5	23,318	22,984	10.8	-3.1
영업이익	1,259	-109	1,674	1,674	32.9	흑전	1,382	1,032	61.4	-38.3
순이익	799	-828	936	816	2.1	흑전	651	510	-15.6	-37.5

자료: LG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대덕전자 (35320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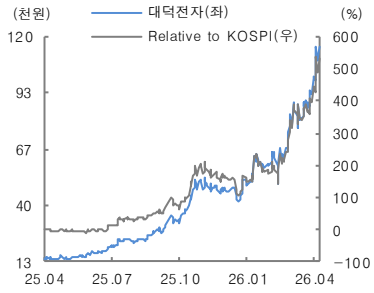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상향

현재주가 115,400
(26.04.29)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690.9
시가총액	5,75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1%
자본금(보통주)	2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5,400원 / 13,9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15억원
외국인지분율	17.49%
주요주주	대덕 외 5 인 30.82% 국민연금공단 13.3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5.1	119.8	204.1	685.0
상대수익률	9.8	71.5	85.5	201.0



1Q 호조, 2Q도 좋다!

- 1Q26 영업이익(513억원 77% qoq)은 종전 추정 및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 서버향 반도체 PCB 매출 확대, FC BGA는 흑자전환 이후 이익 확대
- FC BGA, MLB 매출 증가로 2026년 영업이익은 341%(yoy) 증가 추정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30,000원 상향(36.8%)

목표주가를 130,000원(2026년 EPS X 목표 P/E 36.6배(실적 확장기 상단))으로 상향(36.8%),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2026년 1Q 영업이익은 513억원(77.2% qoq/흑전 yoy)으로 종전 추정(446억원)과 컨센서스(439억원)를 각각 15%, 16.9%씩 상회. 3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상회. 매출은 3,463억원(8.9% qoq/60.8% yoy)으로 컨센서스(3,341억원)를 상회. 1Q26 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각각 16.4%, 14.7%씩 상향

중견 PCB 업체 중 반도체 PCB(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중심의 포트폴리오, 서버향 MLB 매출 확대 및 자율주행 관련한 FC BGA 공급 등 밸류에이션 상향이 진행중으로 판단.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 투자 포인트는

2026년 영업이익은 344%(yoy) 증가 추정 : 서버향 패키지 매출 확대

1) 2026년 1Q 영업이익의 호조로 연간은 2,179억원(344.1% yoy)으로 종전대비 16% 상향. 서버향 메모리 패키지 기판의 매출 증가, 그리고 높은 가동율을 유지하면서 믹스 효과가 확대. 메모리 수요는 스마트폰, PC 영역보다 서버향에서 강한 동시에 층 수의 상향으로 평균공급단가(ASP) 상승도 동시에 진행

FC BGA 부문이 2025년 4Q에 흑자전환(영업이익) 이후에 2026년 1Q 수익성 확대로 연결되면서 이익 증가가 진행. 1Q26 FC BGA 매출은 794억원으로 12.5%(qoq) 증가. MLB도 서버향 매출이 증가하여 높은 가동율을 유지. 추가적인 생산 증설이 진행되면서 2026년 하반기에 이익기여도가 높아질 전망. 1Q26 MLB 매출은 554억원으로 25.5%(qoq) 증가

2) FC BGA, 2026년 흑자전환 및 이익이 추가로 상향 예상. 전장용 중심의 매출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로 반도체향 FC BGA 공급으로 기술적인 상향이 진행.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단계가 상향, 차별화 경쟁력이 확대. 2026년 FC BGA 매출은 3,649억원으로 65.1%(yoy) 증가 추정. MLB의 생산 능력이 2026년 하반기에 증가, 고객의 추가 확보로 2026년 매출은 2,378억원으로 45.7%(yoy) 증가 추정. 인공위성 관련한 MLB 매출도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수혜도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15	318	341	346	60.8	8.9	334	364	48.1	5.1
영업이익	-6	29	45	51	흑전	77.2	44	56	2,911.9	9.6
순이익	-6	26	37	46	흑전	77.6	37	46	954.5	2.2

자료: 대덕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두산 (000150)

사업부문 성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의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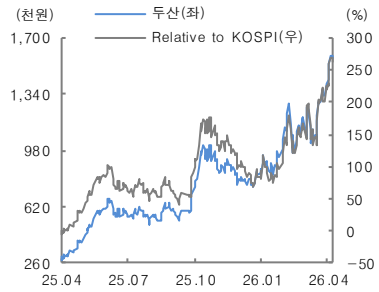
- '26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 상회 이유는 전자BG 제품 공급 증가 영향
- 1Q26 전자BG 매출액 6,173억 원(+53.2% YoY), OPM 30.1% 기록
- 사업부문 성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920,000 유지
현재주가 (26.04.29)	1,572,000
	지주업종

KOSPI	6690.9
시가총액	28,47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2%
자본금(보통주)	9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83,000원 / 303,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12억원
외국인지분율	18.58%
주요주주	박정원 외 26 인 41.08% 국민연금공단 10.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7	76.8	60.2	397.5
상대수익률	6.2	38.0	-2.3	90.7



'26년 1분기 자체사업 매출 7,023억 원, 영업이익 1,878억 원 기록

전자BG 매출액은 6,173억 원(+53.2% YoY, +10.9% QoQ)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 영업이익 또한 1,856억 원(+59.9% YoY)으로 영업이익률 30.1% 기록. 전자BG를 포함한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1,878억 원(+55.1% YoY, +42.4% QoQ)으로 영업이익률 26.7% 시현.

전자BG 증설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으로 전망

'26년 상반기 전자BG 매출 가이던스는 1조 2,770억 원으로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5년~'27년 6,650억 원 규모의 전자BG 사업 부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해외 공장(태국 Araya 산업단지) 신설 계획도 발표. 향후 외형 확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월에 발표한 임직원 보상 RSU를 제외한 자기주식은 하반기에 소각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 올해부터 분기배당(보통주 1,000원) 실시. 실적 성장 지속 시 배당 확대 검토 가능.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299	5,687	4,711	5,060	17.7	-11.0	4,763	5,563	4.0	9.9
영업이익	198	275	326	341	71.7	23.8	323	557	55.7	63.5
순이익	24	-148	21	23	-2.4	흑전	75	48	-38.5	109.6

자료: 두산,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8,133	19,784	21,881	26,149	32,033
영업이익	1,004	1,063	2,017	2,453	3,017
세전순이익	593	490	1,442	1,956	2,526
총당기순이익	302	250	1,123	1,663	2,198
지배지분순이익	-226	76	169	249	330
EPS	-10,562	3,546	7,992	11,828	15,636
PER	NA	220.3	150.5	101.7	76.9
BPS	69,123	72,953	81,328	87,861	92,111
PBR	3.7	10.7	19.3	17.9	17.1
ROE	-14.6	5.0	10.3	14.0	17.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두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두산 에너빌리티 (034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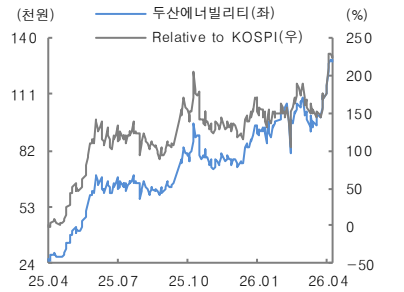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6,000 상향
현재주가 (26.04.29)	129,200
	유틸리티업종

KOSPI	6690.9
시가총액	82,7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52%
자본금(보통주)	3,26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9,200원 / 27,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321억원
외국인지분율	25.47%
주요주주	두산 외 28 인 30.68% 국민연금공단 7.8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7	37.4	34.0	347.1
상대수익률	7.1	7.3	-18.3	71.4



* 2026.02.25 '글로벌 원전 패권전쟁 Phase3: K-원전, 내가 '갑'이 될 상인가?' 레포트 참조

가스터빈 사업 확대!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원전 모멘텀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56,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20%)
- 모멘텀: TVA의 '2025 IRP' 승인, 한전그룹의 미국 원전 건설 참여 여부 등
- 1Q26 영업이익: 연결 2,335억원(+64% YoY), 에너빌리티 570억원(흑전)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56,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20%)

목표주가 156,000원(2035F EV/EBITDA 20배)으로 상향. 이는 1) 가스터빈 연평균 판매량 전망치를 12기에서 16기로 상향, 2)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반영해 2035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임

동사는 1Q26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 1Q26 가스터빈을 10기(국내 3기, 북미 7기)를 수주했으며, 2027년 6월 H급 90MW 중형 가스터빈(수소 100% 전소 가능 탑재, 50/60Hz 겸용)을 출시할 예정임. 이를 통해 2030년 가스터빈 누적 수주 목표를 46기에서 71기, 2034년 78기 → 110기로 상향. 2034년까지 가스터빈 서비스 매출 1조원(연간)을 목표로 제시. 2) TerraPower의 Natrium SMR 주기기 내부 구조물 주기기 2종 제작 계약(수주금액 500억원) 완료, 나머지 1종 연내 제작 계약 추진을 발표함. 관련 총 예상 수주금액은 1,3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힘. 3) 3Q26까지 NuScale의 TVA-ENTRA1 프로젝트(총 6GW) 관련 PPA 체결 후 주기기 12기 모듈 제작 계약을 기대. 4) X-Energy의 Amazon 설치 프로그램 관련 16모듈 핵심소재 예약 계약 체결 후 장주기 품목 공급을 논의 중이며, Rolls-Royce의 영국 원자력청 SMR 사업, GEH의 BWRX-300, 국내 i-SMR 등에서도 참여 기회 확보를 추진 중

1Q26 수주금액은 2.8조원(원자력 0.6조원, 가스/수소 2조원, 복합 EPC 2조원 등)이며, 2026년 잔여기간 수주금액 목표는 10.5조원(대형원전 3.5조원, SMR 1조원, 가스/수소 1.1조원 등)으로 기존 연간 목표치 13.3조원을 유지함

주가 모멘텀: 1) 5월 TVA의 '2025 IRP' 승인, 2) 한국전력그룹의 미국 원전 프로젝트 건설 참여, 3) 한국형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 여부

동사의 주가 모멘텀은 1) 5월 22일 TVA 이사회에서 원전 증설 계획이 포함된 '2025 IRP'의 승인임, IRP 승인 이후 NuScale 프로젝트의 작업 착수 지시, 조건부 PPA 승인 기대. 2) 또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투자 협정, 원자력 협정 등을 한국전력·한수원 중심의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참여 결정임.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AP1000 건설 참여 시 한국의 터빈 빌딩 EPC 담당 여부,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 가능성 등에 따라 동사의 수주 품목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1Q26 영업이익 2,335억원(+64% YoY), 에너빌리티부문 570억원(흑전) 기록

1Q26 연결기준 매출액 42.6조원(+14%, 이하 YoY), 영업이익 2,335억원(+64%)을 기록. 영업이익 컨센서스 1,930억원을 상회. 에너빌리티 이외 밥캣, 퓨얼셀 등 자회사 실적 개선에 기인. 에너빌리티 부문은 매출액 18.96조원(+20%), 영업이익 570억원으로 흑자전환(+584억원, 영업이익률 3.0%)에 성공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749	4,860	4,032	4,261	13.7	-12.3	4,066	4,589	0.4	7.7
영업이익	142	212	180	234	63.9	10.1	194	247	-8.8	5.8
순이익	-69	73	36	1	흑전	-99.0	65	53	-59.2	6,949.8

자료: 두산에너빌리티,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

HD현대 마린솔루션 (44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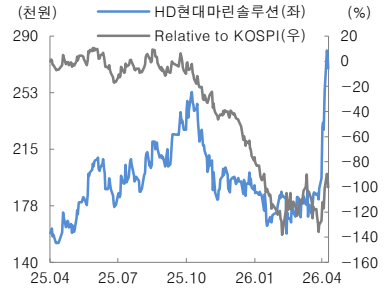
이지니

jinji.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20,000 상향
현재주가 (26.04.29)	268,500 조선업종

KOSPI	6690.9
시가총액	12,03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2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80,500원 / 152,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5억원
외국인지분율	29.04%
주요주주	에이치디현대 외 4 인 55.33% GIC Private Limited 7.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6.0	45.2	9.1	75.8
상대수익률	18.7	13.3	-33.4	-32.6



금상첨화

- 1Q26 매출액 5,746억원, 영업이익 934억원(OPM 16.3%) 기록
- 엔진은 1)물량 증가 2)대형엔진 믹스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 중
- 힘센엔진 AM 독점 및 데이터센터 MRO · FDC 개조로 신성장 가시화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0원으로 28.0% 상향

목표주가는 2027년 EPS 9,175원에 Target Multiple 34.6x 적용. Target Multiple은 글로벌 기자재 및 MRO 기업 26F 평균 P/E 31.5x에 10% 할증하여 산출. 할증 요인은 데이터센터 신성장 모멘텀 반영

물량 증가와 ASP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엔진

AM솔루션 중 엔진 매출은 192.7억원(+22.6% YoY)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은 인도물량(Q) 증가와 단가(P)의 상승 시너지로 판단. 특히 DF엔진 비중 확대 및 대형엔진 믹스 개선(비중 40%→55%)에 따른 ASP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 현재 엔진 슬롯이 2028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DF탑재 선박 비중은 25%를 목표(현재 8%)로 두고있어 고단가 DF엔진 기반의 ASP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데이터센터향 육상 발전 AM + FDC 개조, 신성장 축으로 등장

동사는 힘센엔진의 AM 독점 사업자로서 HD현대중공업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육상발전 엔진 MRO 수혜 기대. 매출은 사이트 완공 시점인 29~30년 이후 발생하고 선박 대비 소폭 높은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Floating Data Center 개조 역시 하이퍼 스케일러 및 선주사 수요가 들어오고 있어 신성장 모멘텀으로 주목 중 (2026년 1분기 상세 실적은 2p 실적 테이블 참고)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86	516	522	575	18.3	11.3	570	562	20.1	-2.2
영업이익	83	91	93	93	12.5	3.2	98	110	32.5	17.8
순이익	63	74	76	73	15.0	-0.9	76	85	61.2	17.3

자료: HD현대마린솔루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45	1,983	2,349	2,668	2,875
영업이익	272	350	440	535	589
세전순이익	297	355	450	541	598
총당기순이익	228	270	342	411	455
지배지분순이익	228	270	342	411	455
EPS	5,302	6,013	7,629	9,175	10,140
PER	30.4	32.2	36.8	30.6	27.7
BPS	17,992	18,397	22,087	26,534	31,000
PBR	9.0	10.5	12.2	10.1	8.7
ROE	45.0	33.7	37.7	37.7	35.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HD현대마린솔루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